

惟一齋 金彦璣 先生の 生涯와 學問 및 教育

金 時 晃(慶北大)

• 目 次 •

- | | |
|---------------|-----------------|
| 1. 머리말 | 4. 實踐 躬行의 學問 |
| 2. 先生の 生涯와 學問 | 5. 後進 養成 - 教育活動 |
| 3. 遺文 및 實紀 | 6. 結論 |

1. 머리말

惟一齋 金彦璣 선생은 朝鮮 中期 安東의 大儒로서 退溪 선생의 高弟子이다. 평생동안 名利를 구하지 않았고, 오로지 聖賢의 學問에만 專念하였으며, 後進 養成에 全力을 기울였으므로, 訥隱 李光庭 선생은 선생의 行狀에서 '福州 文學의 繁盛함이 선생으로부터 倡道되었다' 고 하였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선생의 文集은 전하지 못하고, 다만 [先生 實記]에 詩書 몇 편만이 전할 뿐이다. 그러므로 선생의 深奧한 학문과 사상을 研究할 資料가 없어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文集이 없고 글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해서 學者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자료가 없다고 해서 先賢들의 위대한 삶과 思想이 無視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先生の 집안은 新羅에서 高麗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名卿이었으며, 朝鮮朝에 들어와서 退村선생의 文章과 潭庵선생의 明哲함은 대개 이미 근원이 오래 되었고 길이 전해진 것이다. 선생께서는 先祖의 光彩를 타고나셨고, 법도의 아름다움을 이어받았으니, 참으로 남들과 다른 점이 있었을 것이다. 퇴계 선생께서 道를 倡道하시던 때에 門下에 오른 賢者들과 함께 서로 학문을 갈고 닦으며, 德에

나아가고 業을 닦던 공부는 마땅히 稱道하여 전할 만한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번 火災를 겪어 遺文을 잃어버려서, 그 萬分の 일도 찾을 수 없으니, 참으로 後學들에게 더할 수 없는 유감이다.¹⁾

그래서 [先生 實紀]에 전하는 몇 편의 선생 글과 訥隱 李光庭 선생이 撰한 [先生 行狀] 및 金公 撰 [墓碣銘], 完山 柳顯時 撰 [遺事] 등을 資料로 삼아, 선생의 生涯와 學問 및 教育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先生의 生涯와 學問

1) 家系와 生涯

先生의 字는 仲晷 이고 姓은 金氏이며 新羅 末 王子 興光을 始祖로 한다. 興光은 세상이 장차 어지러울 것을 알고 光州²⁾ 平章洞에 隱遁하였다. 孫子 吉³⁾은 高麗 太祖를 도와 功을 세워, 벼슬이 左僕射⁴⁾ 司空⁵⁾에 이르렀다. 司空의 後孫이 대대로 재상이 되었으므로, 그 고을 이름을 '平章'⁶⁾이라고 하였다 한다.

朝鮮朝에 이르러 光城君 若采는 刑曹佐郎인 閱을 낳았는데, 號가 退村이며, 文章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그 일이 虛白堂 洪貴達의 [氷玉稿序]에 실려 있다. 그 曾孫은 進士 用石인데 號가 潭庵이며 先生의 祖父이다. 潭庵은 佑畢齋 金宗

1) 金公 撰 [墓碣銘]

2) 지금의 全羅南道 光州를 말한다.

3) [光山金氏退村公派族譜 1994年 刊行]에는 佶字로 되어 있음.

4) 左僕射 : 고려 때 尙書都省에 딸린 正 2품 벼슬. 11대 文宗 때 배운 벼슬로 25대 忠烈王 원년(0275)에 폐지하고, 24년(1298)에 다시 僉議府에 두었다가 곧 폐하였다. 그러다가 31대 恭愍王 5년(1356)에 文宗 때의 제도로 다시 설치되었다가 11년(1362)에 폐지 되었다. 尙書 左僕射라고도 한다.

5) 司空 : 고려 때의三公의 하나로 正 1품 벼슬이었다.

6) 平章 : 平章政事 혹은 平章事라고도 한다. 고려 말엽 中書 門下省의 正 2품벼슬로 31대 공민왕 9년(1360)에 中書 侍郎 平章事와 門下 侍郎 平章事를 합하여 고친 이름이다.

直 선생의 門下에 遊學하여, 일찍이 秋江 南孝溫, 中和 姜應貞 등 여러 名士들과 함께 太學에서 공부하며 朱夫子의 鄉約을 익혔고, 每月 초하루에는 [小學]을 講論하였는데, [秋江錄]에는 潭庵과 申從濩 公이 더욱 뛰어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潭庵은 燕山君의 정치가 혼란함을 보고 福州⁷⁾의 九潭에 隱遁하였다. 여덟 아들을 낳았는데 넷째인 諱 籌는 進士로 竹溪 安氏 僉正 處貞의 딸에게 장가들어 正德 庚辰⁸⁾년 모월 모일에 선생을 낳았다. 선생의 家系는 아래와 같다.⁹⁾

- 1世 : 新羅國 金氏 王子 興光 遜于光州平章洞
- 2世 : 軾 角干
- 3世 : 吉 左僕射 司空 佐高麗太祖 有功
- 4世 : 峻 左僕射
- 5世 : 策 文貞公
- 6世 : 廷俊 平章事
- 7世 : 良鑑 文安公
- 8世 : 義元 忠貞公
- 9世 : 光中 秘書監
- 10世 : 縉 順安縣令
- 11世 : 珠永 戶部尙書
- 12世 : 光存 吏部尙書
- 13世 : 大麟 門下侍中
- 14世 : 璉 良簡公
- 15世 : 士元 貞景公
- 16世 : 稹 章榮公
- 17世 : 英利 軍器監事
- 18世 : 鼎 (光城君)
- 19世 : 若采 都觀察使 光城君¹⁰⁾
- 20世 : 閔 刑曹佐郎 贈參議 退村公 以文章顯
- 21世 : 達孫 直長 贈參判

7) 福州 : 安東

8) 中宗 15年(1520)

9) [光山金氏 退村公派族譜]

10) [遺事]와 [行狀]에는 '光城君 若采'라 하였는데, 族譜에는 '光城君 鼎'이라 하였다. [遺事]와 [行狀]을 따른다.

- 22世 : 洙 江華都護府使 贈吏曹判書
 23世 : 用石 成均進士 潭庵 佔畢齋 門人 燕山君 政亂 遯跡福州之九潭
 24世 : 籌 進士
 25世 : 彦璣 成均生進 唯一齋
 26世 : 得研 贈司憲府 執義 葛峯
 27世 : 光澍 生員

선생의 집안은 王子가 세상이 어지러울 기미를 알아차리고, 세상을 피해 숨어 사는 高尚한 풍모가 超越¹¹⁾하였으며, 高麗¹²⁾ 시대에는 대대로 이름난 公卿이 되었다. 我朝에 들어와서는 이름난 사대부가 되어 退村의 文章과 潭庵의 學術은 광채를 드리워 후세에까지 미쳤고, 潭庵이 기미에 밝아 明哲의 으뜸이 되어, 자손이 번창하고 집안의 가르침을 따라 문장과 행실로 세상에 이름난 사람이 많았다.¹³⁾

선생은 天品이 淸高하고 方正 質朴하였으며, 器局¹⁴⁾이 있었고, 말과 웃음을 구차스럽게 하지 않았다. 부모를 섬길 때는 방법을 다하였고, 형제와 友愛가 있었으며, 뜻을 篤實히 講劄하여 학업을 成就하였다.

일찍이 栢潭 具鳳齡과 淸涼山에 들어가 십 년 동안 독서할 것을 期約하였는데, 선생에게 緣故가 있어 栢潭보다 일년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산을 나설 때 바위 언덕의 초목들이 모두 독서한 글자로 보였다고 한다.

선생은 時文¹⁵⁾에 대해서는 남과 매우 다르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衆論에 따라 선발되어, 고을에서 여러 번 薦舉하였지만 곧 省圍¹⁶⁾에서는 실패하였고, 48세에 비로소 生員이 되었지만 名利에는 淡泊하였다.

선생은 初年에 九潭에 살다가 中年에 伊溪로 이사하였고, 晩年에는 佳野에 집

11) 邈 : 뛰어난을막. 超越하다. 高遠하다.

12) 勝國 : 망한 나라. 前代의 王朝를 말함. [周禮 地官 媒氏] '凡男女之陰訟 聽之于勝國之社'

13) 訥隱 李光庭 撰 [先生 行狀]

14) 器局 : 재능과 도량.

15) 時文 : 당시에 널리 쓰이는 글. 여기서는 과거공부를 뜻하는 뜻하다.

16) 省圍 : 궁성이 서울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서울에서 임금 앞에서 시험을 치르는 殿試를 말한다.

터를 정하였는데, 陶山과의 거리가 삼 십리¹⁷⁾도 되지 않고, 또 吳川의 宗人¹⁸⁾인 後彫堂 富弼과 여러 從兄弟들이 산봉우리 하나를 사이할 정도로 가까이 있었으며, 柏潭 具鳳齡 및 晦谷 權春蘭, 松巖 權好文, 芝山 金八元 등 諸賢들과도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모두 山寺에 모여 학문을 講論하였다. 골짜기 어귀 水石이 아름다운 곳으로 지금까지도 '九仙臺'라고 부르는데, 대개 여러 선생이 일찍이 遊息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붙였다고 한다.

辛酉年(1561)에 書舍 몇 간을 지어 '惟一齋'라는 懸板을 걸고, 날마다 生徒들을 가르치자, 生徒들이 모여들어 모두 다 受用 할 수 없을 정도였다. 生徒가 머물러 자는 곳은 '觀善'이라 이름하고, 합하여 현관을 '光風軒'이라 하였다. 光風軒 앞에 半 이랑의 연못을 파서 '活水'라고 이름 짓고, 날마다 여러 生徒들과 經學 授業을 講說하며 부지런히 힘을 쓰고 게을리 하지 않았다. 때로는 水石들 사이를 逍遙하며 의지를 북돋우어 주고, 그들이 自得하게 하여 재능에 따라 인도하고 이끌어¹⁹⁾ 주었다.

隆慶 丁卯(1567)년에 生員試에 합격하였다. 평소에 성품이 淡泊하여 顯達함을 구하지 않았는데, 만년에 하나의 이름을 이루었으나 선생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로부터 다시는 科擧에 응시하지 않고, 隱居하여 뜻을 구하고, 더욱 덕에 나가고 몸을 닦는 공부에 힘을 썼다.²⁰⁾

辛未(1571)年 寧海 教授에 除授되었다. 다음해 정월에 講堂을 수리하고 학교 規約을 펴서 밝혔다. 학생을 장려한 부지런함과 인재를 배양한 盛大함은 고을의 어른들 사이에 전해지는 것이 많다.²¹⁾

晩年에 부모의 喪²²⁾을 당하여 不毀의 나이를 넘겼음에도 執喪하는 것이 매우 철저하여 喪禮·葬禮·祭禮를 모두 家禮에 따라 한결같이 하였다. 비록 減性²³⁾

17) 一舍 : 삼십리.

18) 宗人 : 同族의 사람.

19) 誘掖 : 誘益. 인도하여 도와 줌.

20) [遺事]

21) [遺事]

22) 巨創 : 큰 슬픔이란 뜻으로 부모가 돌아가시는 것을 말한다.

23) 減性 : 親喪을 당하여 너무 슬퍼한 나머지 병을 얻어 죽음.

을 경계하였으나, 억지로 거친 밥을 먹고, 마침내 슬퍼함이 지나쳐 건강을 해쳐 병이 들어 萬曆 戊子(1588)年 3월 15일에 正寢에서 돌아가시니 향년 69세였다. 이해 某月 某日에 臥龍山 남쪽 기슭 丑坐의 언덕에 葬事지냈다.

2) 整齊嚴肅한 風貌와 溫良恭敬의 態度

선생은 용모가 홀륭하고 體格이 컸으며²⁴⁾ 성품이 嚴正하고 確實하여 喜怒를 안색에 나타내지 않았다. 村老들이 전하기를 ‘우리들은 일찍이 이 어른이 입을 여는 것을 본적이 없다.’ 고 하였다. 평소에도 지내실 때도 조용하고 말이 없어 婦人²⁵⁾들과 아이들이 두려워하며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접할 때는 너그러우면서도 包容力이 있고, 온화한 기운이 넘쳐 나서²⁶⁾ 어진 사람들은 사랑하고 恭敬하였고, 不肖한 사람들은 보고 느끼는 것이 있었다. 일에 임하여 酬酢할 때에도 조용하여 急迫함이 없어서 행동하는 것마다 義理에 부합하였다. 고을에 큰 일이 있을 때는 곧 선생에게 나아가 여쭙어 바로잡았다.

感興이 일면 지팡이 짚고 신을 신고 逍遙하며 읊조려, 悠悠自適하며 儻然²⁷⁾히 俗世를 벗어난 모습이 있었다. 生徒 가운데 성취함이 있는 사람은 非但 잘 이끌어 준 것에 힘입었을 뿐 만 아니라, 또한 선생을 보고 느끼는 가운데 攄得한 것이 많았다.

선생은 敦篤하고 眞實하여 겉치레를 물리쳤고²⁸⁾, 行蹟은 名利를 구하지²⁹⁾ 않았다. 몸가짐을 삼가 행실이 정결하였지만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³⁰⁾ 않았으며, 일상의 행동 규범은 세상을 놀라게 하거나, 세상을 떨치게 하는 행동을

24) 魁偉 : 체격이 크고 홀륭함.

25) 女 邊에 負한 字는 婦와 같음.

26) 薰然 : 사람이 인자하여 자연히 남을 감화시키는 모양.

27) 儻然 : 날개를 쳐서 날아가듯 빠른 모양.

28) 紉 : 물리칠출.

29) 近名 : 名利를 求하다. [近思錄 爲學] ‘學者須是務實 不要近名’

30) 斲 : 벌기. 벌어구하다. 斲.

하지 않았다.

隱居하여 뜻을 구하며 행동이 높고 德이 뛰어났으나³¹⁾ 세상에 선생의 造詣를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 松巖 權好文 선생은 선생과 道를 같이하고 뜻이 合致되어 함께 세상으로부터 隱居하였는데 松巖은 만년에 齋郎³²⁾에 除授되었다. 선생이 그것을 듣고 말하기를, “章仲은 또한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였다. 松巖 역시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아아, 선생은 참된 隱者로다. 선생이 이미 돌아가시자 門人들이 서로 함께 해마다 한 번씩 선생의 무덤에 제사를 올렸고, 자손들도 해마다 의식을 거행한 지 백여년이 되었으니, 그들이 선생의 德을 欽慕하는 것이 깊음을 알 수 있다.

肅宗 辛亥(1671)년에 士林들이 선생과 高麗朝의 桑村 金自粹 및 芝山 金八元 芝軒 鄭士誠 선생 등을 玉溪書院에 配享하였는데, 십일 년이 지나 書院의 신설을 금지하는 명이 있어서 書院을 撤廢하고 제사하지 않았지만 선생에게 무슨 損傷이 되겠는가.

선생이 남기신 자취와 행실, 아름다운 말과 지극한 議論은 훌륭한 제자와 훌륭한 자식들의 기록이 있었겠지만 거의 없어져서³³⁾ 하나도 남은 것이 없다. 생각해보면 혹 선생의 평소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자로 나타내어 선생이 남기신 警戒를 함부로 범하지 않으려 한 것인 듯하고, 또한 혹 그것이 남아 있다해도 兵火에 없어져서 세상에 나타나지 못한 것인가 한다.

다만 선생의 名聲이 오래되어도 더욱 빛나지만, 門弟子들의 輓詞와 祭文을 보니, 함부로 盛大하게 稱頌하여 말한 것이 없는데, 대개 선생이 평소에 謙遜하게 辭讓하고³⁴⁾ 文字를 두려워하고 미워함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西厓와 鶴峯 두 선생은 한 시대의 司命³⁵⁾과 權衡³⁶⁾이 되었는데, 西厓 선생

31) 邵 : 아름다울소. 劬와 通用. [法言 修身] ‘公儀子 董仲舒之 才之邵也’

32) 齋郎 : 廟·社·殿·宮·陵의 參奉을 통칭한다. 혹은 祭享 때 香爐를 받드는 祭官, 齋官.

33) 泯泯 : 멸망하려고 하는 모양.

34) 謙挹 : 겸손히 사양함.

35) 司命 : 사람의 생명을 맡음.

36) 權衡 : 권력을 비유한 말.

은 輓詞에서 '배우고 즐거워하며 온 집안이 누추했지만, 향리에서는 나이가 높고 덕이 높이 도달하였다고 추앙하네' 라고 하였고, 鶴峯 선생은 선생의 草堂詩에 和韻하여 '螢榻에 앉은 사람 옥과 같고, 講學 끝난 鱸堂³⁷⁾에 말없이 앉아 있네.'라고 하니, 오히려 상상하여 마치 보는 듯 하였다.

陶山 門下의 여러 賢人들, 예를 들어 柏潭·松巖·後彫·日休·晦谷·芝山·文峯·藥峯 선생 등이 和答한 여러 글에서도 선생이 간직하셨던 한두 가지를 헤아려 볼 수 있다. 선생의 詩 한 수와 편지 한 편을 음미해 보면 또한 백년의 뒤에도 선생을 상상할 수 있다.

3. 遺文 및 實紀

선생의 文集이 없고 詩文 또한 거의 남아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지만, 아래의 기록들을 보면 그 원인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龍蛇의 亂³⁸⁾에 본가의 문서들이 불탄 나머지 죄다 없어져 버렸다. 선생의 모든 평상시의 詩文 著述과 친구간에 주고받은 편지들이 백에 하나도 남은 것이 없다. 다만 「茅齋詩」 세 수와 廬江의 洞主가 되었을 때 退溪 선생의 白雲洞書院 故事에 의거하여 廬江書院을 國學으로 승격시켜 달라고 당시 安東郡守에게 올린 편지 한 통만이 세상에 전해져 寂寥함이 심하였다.

생각해 보니 師門의 편지들 또한 불타고 잃어버려서 退溪 선생의 원고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본가에서 당시에 거두어들이고 보내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³⁹⁾

선생의 實紀는 2卷인데 卷一에는 선생의 詩 〈題茅齋〉와 이에 대한 次韻詩 32首, 外 詩 4편과 輓詞 1편, 賦 1편, 書 2편, 識 1편이 등재되어 있고, 卷二는

37) 鱸堂 : 鱸 전어전. 두렁허리선(민물고기). 선당, 講學하는 곳. 後漢 때 황새들이 세 마리의 두렁허리를 물고 楊震의 講堂 앞에 날아와 모였다 함.

38) 龍蛇之亂 : 임진왜란을 말함.

39) 〔行狀 後序〕

附錄으로 輓詞 祭文 行狀 行狀後敘 墓碣銘 遺事 遺事後敘 門人錄跋 同門通諭文 玉溪書院奉安文 龍溪書院報德祠尙享祝文 門人會奠文 會奠尙享祝文 聞見錄 門人錄 등이다. 아래에 그 大綱을 보인다.

1) 詩

[題茅齋]

謀拙難成屋數間	계획이 졸렬하여 몇 칸 집 못 이루어
開基春日涉冬寒	봄날에 터 닦고서 추운 겨울 지났네
重茅風散椽全露	띠풀에 바람 날려 서까래 드러나고
博士氷凝壁未乾	홍벽들은 얼어버려 벽이 마르지 않네
月入虛簷明照榻	처마끝에 달빛은榻을 밝게 비추고
烟生疎戶翠連山	띠집에서 나는 연기 푸른 산을 두르네
蕭條雖甚吾猶樂	비록 몹시 쓸쓸하나 내 오히려 즐거우니
爲是身心兩得閒	몸과 마음 모두가 한가롭기 그지없네

이 詩는 題目에서 보여 주는 것과 같이 시골에 사는 質朴하고 儉素한 선비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茅屋 몇 間을 짓는데 봄에 시작하여 겨울까지 한 해가 걸렸다. 가난한 사람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눈에 흰하며, 그래도 밝은 달빛과 자연이 한데 어울려 한가하고 여유가 있어, 몸과 마음이 저절로 즐거우니, 가난의 苦痛과 외로움은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다. 安貧樂道, 바로 그러한 儒者의 사상이 밑바탕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 詩에 次韻한 賢人들은 무려 20人 29首인데, 柏潭 具鳳齡 1首 鶴峯 金誠一 1首 松菴 權好文 3首 晦谷 權春蘭 4首 芝山 金八元 1首 忍齋 權大器 1首 文峯 鄭惟一 5首 一齋 具贊祿 1首 東臯 安霽 1首 雪月堂 金富倫 1首 翠屏 高應陟 1首 藥峯 金克一 1首 龜峯 金守一 1首 後凋堂 金富弼 1首 日休堂 琴應夾 1首 春塘 吳守盈 1首 溪堂 孫冀 1首 靑巖 李元承 1首 晚翠軒 李憑 1首 一竹齋 辛乃沃 1首 등이고, 후대에 追加 次韻한 이들은 3인 3首인데, 孤山 李惟樟 1首 訥隱 李光庭 1首 雨溪 金命錫 1首 등이다. 紙面 關係로 作者의 姓名과 詩數만 紹介한다.

이 외에 〈翠寒臺吟贈郭浩齋景舍〉〈白雲洞和浩齋韻〉〈贈安青松鼎二首〉〈次權章仲寒樓齋韻〉〈輓金伯榮富仁〉 등 詩 4편과 輓詞 1편이 있으나, 紙面 關係로 여기서는 省略한다.

2) 賦

[入德門]

이 入德門賦는 선생이 學問에 대한 깊은 理致를 說破한 글이다. 그러므로 선생의 學問을 論하는 章에서 言及하므로 여기서는 줄인다.

3) 書

[上府伯權草澗 文海]

이 편지는 萬曆 元年(1573) 11월 2일 廬江의 洞主가 되었을 때, 退溪 선생의 白雲洞書院 故事에 의거하여 廬江書院을 國學으로 승격시켜 달라고, 당시 安東府使인 草澗 權文海 선생에게 올린 것이다. 중요 內容 몇 가지를 要約하면 아래와 같다.

“퇴계 선생께서는 타고난 자질이 道에 가깝고 총명함이 남보다 뛰어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어 聖賢을 우러러 사모하였고, 超然히 홀로 뛰어나 師承을 따르지 않았지만, 그 학문이 이치를 窮究하고 淵을 지극히 하였습시다. 자신을 반성하고 실천하여 가까운 것을 먼저 하고, 먼 것을 나중에 하며, 낮은 것에서부터 높은 곳에 도달하여, 德에 나아가려는 뜻이 金石처럼 堅固하였으며, 存心省察의 공부가 일상생활 속에 드러났습시다. 학문과 行실⁴⁰⁾이 지극하였고, 敬과 義를 잘 간직하여 순수하고 온화하였으며, 圭角⁴¹⁾을 드러내지 않았습시다. 克己의 修養이 이미 오래되었고, 뛰어

40) 博約 : 博文約禮. 널리 학문을 구하고 예법을 잘 지킴. 『論語, 雍也』 “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41) 圭角 : 언어와 행동이 모여서 남과 맞지 않음.

난 文章⁴²⁾이 나날이 아름다워졌습니다. 선생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는 格物致知로부터 誠心正義에 이르기까지, 修身에서 齊家·治國·平天下에 이르기까지, 灑掃·應對로부터 窮理·盡性에 이르기까지, 정연히 순서가 있는 것이 그 타고난 성품에서 起因하여 그것을 성취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선생의 행실은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있을 때에도 일정함이 있어서 內外가 일치하여, 항상 上帝가 선생의 옆에 계신 듯, 부모와 스승이 앞에 계신 듯 하셔서 威儀와 動作의 모범이 됨은 젊어서부터 늙음에 이르기까지, 혹독한 추위와 무더위, 그리고 잠시라도 조금도 차이가 없었다.

外物과 交接할 때는 마치 봄벌의 온화함 같으셨고, 사람들과 감응하실 때는 때맞춰 내리는 비(時雨)의 潤澤함과 같으셨습니다. 일에 應해서는 온갖 변화가 앞에서 交叉하더라도 그것을 밝히는데 털끝만큼도 실수가 없으셨고, 저울질하는 데도 輕重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은 비록 한가하게 지낼 때라도 일찍이 하루도 마음에서 잊지 않았고, 충실하고 부지런히⁴³⁾ 聖學을 開導하여 임금의 덕을 도와 기르는 것을 至治의 큰 根本으로 삼았습니다. 「聖學十圖」를 올려 出處의 근원을 바로잡고 「時務六條」를 올려 시대에 절실한 임무를 陳述하였는데, 말씀하신 것이 모두 至誠과 惻怛에서 나온 것이며, 實行을 즐기고 어긋남을 근심하신 것은 古人的 出處와 進退의 義理에 부합되었습니다. 비록 오래도록 朝廷을 떠나 계셨지만 사람들이 항상 선생의 出處를 吾道の 盛衰와 國家의 安危라고 여겼습니다.

晩年에 이르러 道를 이루고 德을 세웠지만, 오히려 義理는 무궁하고 歲月은 有限하다고 여기시며, 항상 뜻에 차지 않는 듯⁴⁴⁾ 부족하게 여기시고, 항상 시키는 공부를 계속하여 그침이 없으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같이 하셨습니다.

선생께서는 道에 대해 진실로 쉬지 않고 노력하신⁴⁵⁾ 분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께서 著述하신 「天命圖說」은 性理의 근원을 드러내어 밝히신 것이고, 撰述하신 『理學通錄』은 斯道の 傳承을 밝혔고, 『啓蒙傳疑』는 易學의 정밀하고 미묘한 이치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朱書節要』는 先儒들이 공부하던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經傳을 訓詁하고 해석하는 데 이르러서는 이미 모두 참고하고 고증하여서 俗儒들의 歪曲된 학설을 바로잡았습니다.

講論하고 말씀하실⁴⁶⁾ 때는 또 반드시 세밀하게 분석⁴⁷⁾하여 후학들이 道를 향해 가는 방향을 한결같이 하였고, 理氣의 선후를 論할 때와 朱子學과 陸

42) 英華 : 아름다운 심정이 외부에 나타난 것. 우수한 문장. 名譽.

43) 拳拳 : 근심하는 모양. 일설에는 사랑하는 모양. 충실하고 부지런한 모양.

44) 兢兢 : 뜻에 차지 아니한 모양.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모양.

45) 自強不息 : 『周易, 乾卦』天行健, 君子以自強不息.

46) 辭說 : 말, 이야기.

47) 毫分縷析 : 아주 잘게 분석함.

王學의 차이를 分辨하실 때는 우뚝하기가⁴⁸⁾ 마치 물결 속에 솟은 砥柱石 같고, 환하기가 해와 별이 하늘에 걸린 듯 하여 우리 나라 사람들이 선생을 우러르는 것이 마치 泰山과 喬嶽의 높은 모습을 우러러보는 듯 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학문의 要諦와 이 道의 바른 것을 듣게 되었으니, 선생이 道에 대하여 강론하고 도와주신 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文章과 節義로 이름난 선비들이 대대로 적지 않았고, 간간이 道學으로 세상에 이름난 사람이 또한 한둘이 아니었지만, 表裏와 精粗⁴⁹⁾가 粹然하여 한결같이 正道에서 나오고, 洙泗의 嫡統을 빛내었으며, 程子와 朱子의 學統을 밝히신 분은 오직 선생 한 분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다행히도 지금 이 한 때에 이웃 마을에서 스승으로⁵⁰⁾ 모셔서, 오래도록 春風을 쐬고 향기로운 물에 목욕하듯 가르침을 입고⁵¹⁾ 직접 받아, 눈으로 상상하고 마음으로 사모하여 가슴속에 感興한 것이 더욱 깊고 절실하여졌습니다.' 라고 하였다.⁵²⁾

이 편지를 자세히 음미해 보면 서술한 차례가 조리가 있고 백여 마디의 말 가운데 先師의 始終을 包括하여 거의 빠트림이 없어 지혜로는 聖人으로 알아서 오래도록 從遊하여 마음으로 기뻐하고 정성으로 감복하여 살펴보고 묵묵히 그것을 안 것이 아니라면 참으로 形容이 이에 미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생의 학문의 조예를 알 수 있는 것이다.⁵³⁾

4. 實踐 躬行의 學問

선생의 學問에 대한 著書와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遺事] [行狀] 등의 기록을 중심으로 고찰해 본다. 그리고 선생의 學問에 대한 깊은 理致를 논한 글인 入德門賦가 있으므로 그것을 상세히言及하려 한다.

48) 屹然 : 높이 솟은 모양. 우뚝 솟은 모양. 독립한 모양. 외따로 선 모양.

49) 精粗 : 작음과 큼. [禮記 樂記] '降興上下之神 而凝是精粗之體' 精密함과 粗雜함.

50) 函丈 : 스승의 자리와 자기의 자리 사이에 한길(一丈)의 여지를 둔다는 뜻. 전하여 스승. 또는 스승이나 어른에게 보내는 편지에 받는이의 이름 밑에 써서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말.

51) 薰沐 : 향내를 옷에 피우고 머리를 감음. 몸을 깨끗이 함.

52) [先生 行狀]

53) [先生 行狀]

(1) 선생의 修學 過程

선생의 修學 過程은 遺事에 비교적 잘 나타나 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自志學至于盛年 勤劬篤實 立志甚確 閉門靜坐 潛心墳典 居常以君子儒自期待 未嘗屑屑爲舉子業’⁵⁴⁾

(15세 때부터 盛年⁵⁵⁾에 이르기까지 부지런히 힘쓰고 독심하였으며, 뜻을 세움이 매우 堅實하였다. 문을 닫아걸고 조용히 앉아 三墳五典⁵⁶⁾에 沈潛하였다. 거처할 때는 항상 君子儒로 스스로를 期待하였고, 일찍부터 科擧보는 일은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嘉靖辛酉春 築書齋於居第之東 盖爲藏修遊息計也 齋成以惟一揭號 明牕淨几 左右圖書 咀嚼道腴 芻豢經訓 以究聖賢之旨意 時則 有若柏潭松巖芝山諸賢 與之遊從 約爲同志契 每於月朔來往 合席講道論學 交取資益’⁵⁷⁾

(嘉靖 辛酉, 1561년에 집의 동쪽에 書齋를 지어, 수양하며 遊息할 계획을 하였다. 書齋가 이루어지자 ‘惟一齋’라 이름을 걸었다. 창을 밝게 하고 책상을 깨끗이 하여 좌우에 圖書를 쌓아 놓고, 道義를 玩味하며 經訓을 되새겨 聖賢의 旨意를 연구하였다. 당시에 柏潭 具鳳齡·松巖 權好文·芝山 金八元 등 諸賢들과 從遊하여 同志契를 만들어 매일 초하루가 되면 往來하면서 자리를 함께 하고, 도의를 강론하고 학문을 논의하여 서로서로 도움을 취하였다)

선생은 天稟이 卓越하고 家風을 이은 자취가 아름다와 본래부터 남과 다른 점이 있었다. 직접 大賢⁵⁸⁾에게 親炙하였고,⁵⁹⁾ 門下의 諸賢들과 왕래하며 학문을

54) 完山 柳顯時 撰 [遺事]

55) 盛年 : 元氣가 旺盛한 나이. 한창 때. [顏氏家訓 勉學] ‘人有坎壈 失於盛年 猶當勉學’

56) 삼분오전(三墳五典): 삼황(三皇: 伏羲·神農·黃帝)과 오제(五帝)의 글. 오전은 오경(五經: 詩·書·易·春秋·禮記)을 지칭하기도 함.

57) 完山 柳顯時 撰 [遺事]

58) 大賢 : 위대한 현인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퇴계 선생을 말한다.

59) [上府伯書] ‘스승¹⁾을 모시고 오래도록 春風을 쐬고 향기로운 물에 목욕을 하듯 직

뒤었는데, 학문이 淳朴하고 深重하며, 德業이 成熟하여 本末이 참으로⁶⁰⁾ 있었으나, 화재⁶¹⁾로 遺文과 遺蹟들이 없어져 하나도 남지 않았고, 그 나머지도 상고하여 찾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⁶²⁾

초년에는 九潭에 살다가 중년에는 伊溪로 옮겼는데, 대개 師門에 왕래하기 위해서, 또 同門들과 서로 從遊하며 학문을 講磨하기에 편리하였기 때문이었다. 선생은 총명하고 슬기로운 자질과 돈독하고 성실한 의지로서 어린 나이에 陶山에 歸依하여 직접 旨訣을 계승하였다. 外慕에 대한 뜻을 끊어버리고 學問에 나아감과 修身함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다만 남보다 먼저 理⁶³⁾에 가까울 것을 힘써서 날마다 새로와 지고 넉넉해지는 공부는 크게 同門들이 추앙하여 복종하는 것이 되었다.⁶⁴⁾

(2) 入德門賦

入德門賦는 선생의 學問思想 眞髓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전문을 國譯하여 紹介한다.

余幼蒼黃乎多岐 나는 어려서 學問의 多岐함에 당황하였고⁶⁵⁾
 悶致遠之無路 深遠함에 도달할⁶⁶⁾ 길이 없음을 고민하였다.
 側鬼關而蹣跚 鬼關⁶⁷⁾이 가까워짐에 비틀거리며⁶⁸⁾

접 그 가르침을 익혔네'

60) 宜 : 참으로. 당연히.

61) 回祿 : 火神. 전하여 火災.

62) [行狀]

63) 鞭着 : 着先鞭. 남보다 먼저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뜻으로, 남에 앞서서 功을 이룸. 남을 앞지름.

64) 李守貞 [行狀 後序]

65) 蒼黃 : 허둥지둥 당황하는 모양.

66) 致遠 : 가장 먼 곳에까지 이르름. 『易經』 探頤索隱, 鉤深致遠.

67) 鬼關 : 저승으로 들어가는 문.

68) 蹣跚 : 蹣, 절뚝거리는모양반. 跚, 절뚝거리는모양산. 비틀거리며 가는 모양.

仰前修之駿步	先賢 ⁶⁹⁾ 의 큰 발자취를 우러렀다
忽起警於聖訓	忽然히 聖訓에 경警戒하는 마음을 가져
喜入德之有門	德에 들어가는 문이 있음을 기뻐하였다
豈冥行之可入	어찌 學問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⁷⁰⁾
必明己而後遵	반드시 자기를 밝힌 후에야 따르겠는가
立本然之正基	本然의 올바른 기틀을 세우고
通至道之大原	至極한 道理의 큰 근원에 통하며
儼規模之宏大	規模의 宏大함을 공경하고 진중히 하여,
關復初之牖戶曰	처음을 회복하는 ⁷¹⁾ 창문 ⁷²⁾ 을 닫고 말하기를
余倚門而窺闕	나는 문에 의지하여 문지방을 엿보아
感聖謨之肇造	聖賢의 가르침에 처음으로 나아감을 느꼈고
任先覺之啓後	先覺의 後學 啓導의 임무를 알았다
思乎寐而就覺	蒙昧한 가운데 생각하여 깨달음에 나아가고
因天性之固有	天性의 고유함에 기인하여
闢人立之門闕	사람이 세워 놓은 문을 열고
廓大開而無闕	道에 들어가는 문을 크게 열어 짓히니 ⁷³⁾
標所止之有極	머물 곳이 한계 있음을 표해 놓았다
三綱儼其棟樑	三綱 ⁷⁴⁾ 은 棟樑 ⁷⁵⁾ 으로서을 엄연히 하고
八條燦其節目	八條 ⁷⁶⁾ 는 그 節目을 찬란히 빛내어
井階級之次序	계급의 차례를 바르게 정하였다
有踐履之規則	실행의 도리에는 규칙이 있으므로
隔人鬼而作關	사람과 귀신 격함을 관계 지어
明善惡之區域	선과 악의 구역을 밝히고
諒機械之備具	機械 ⁷⁷⁾ 가 갖추어 졌는가를 살폈다
豈賢智之獨由	어찌 어질고 지혜로운 것이 오로지
極宇宙而廣撥	宇宙의 지극함에 널리 열리겠는가
固人人其同趣	참으로 사람마다 그 취향이 같은 것

69) 前修 : 前世의 有德한 賢人, 옛날의 君子, 先哲, 先賢.

70) 冥行 : 冥行 擡植, 冥行은 캄캄한 곳을 가는 것. 擡植은 장님이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면서 길을 가는 것으로 학문을 함에 있어서 그 방도를 모름을 비유한 말이다.

71) 復初 : 처음의 본성으로 되돌아 선다는 뜻으로 『莊子』의 “學求以復其初”에서 나왔다.

72) 牖戶 : 戶牖, 지게문과 창문 또는 집의 창문이란 뜻이다.

73) 闕 : 단힐애.

74) 三綱 : 大學의 三綱領인 明明德 新民 止於至善.

75) 棟樑 : 마룻대와 들보로 一家 또는 一國의 중임을 담당하는 사람을 비유한 말이다.

76) 八條 : 大學의 八條目인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

77) 機械 : 교묘한 구조의 기구, 교묘한 지혜, 策略.

是立教之大本 이것이 立教의 큰 근본이니

允學者之先務 진실로 학자들이 먼저 힘쓸 것이다
 肆君子之就學 그러므로⁷⁸⁾ 君子가 학문에 나아감에
 必先提其樞紐 반드시 먼저 긴요한 것을 제시하여
 要知止而格致 머물 곳을 알아서 格物 致知하며
 認本末之先後 본과 末의 先과 後를 인식하여
 力不遑於誠正 誠意 正心⁷⁹⁾을 힘써 급히 하지 말고
 慎厥德而自修 그 德을 삼가서 自修⁸⁰⁾하며
 靜守內而存養 고요히 內心을 지켜 存養할 것이고
 動閑外而省察 행동은 外物의 유혹을 막아 省察하며
 知取善而去惡 善을 취하고 惡을 버릴 줄을 알아서
 若惡臭而好色 색을 좋아함은 나쁜 냄새같이 하라
 明一心之白日 일심을 白日⁸¹⁾처럼 밝게 가지고
 燭萬事之精粗 만사의 精密함과 粗雜⁸²⁾함을 밝혀
 門一入而漸進 德의 문에 들어서면 점차 나아가고
 坦脚踏之廣平 일을 하는 것⁸³⁾이 크고 공평하여
 無風雨之雜擾 풍우가 번잡하게 뒤흔드는 일이 없고
 有心天之光明 마음과 天理가 광명하게 하라
 然一步之失脚 그러나 한 걸음 발을 헛디디면
 恐千里之謬程 千里의 오류가 생길 것이 두려우니
 斯始入之有戒 이에 처음 德에 들어설 때 경계하며
 要自謙而謹獨 스스로 겸양하여⁸⁴⁾ 혼자일 때 삼가라
 持一敬而直內 한결같이 敬으로 안을 곧게 견지하여
 敵千僞而防外 천의 거짓을 대적하여 밖을 방비하며
 竟推己而知彼 필경 자기를 미루어 저를 알아
 處前後而不悖 전후에 대처함이 거스르지 아니하고
 彼治平之大道 저 治國과 平天下의 크나큰 道理가
 不出門而可推 문을 안 나서도 추진될 수 있게 하라

78) 肆 : 그러므로. 故.

79) 誠正 : 참되고 올바름. 속임과 거짓이 없는 것.

80) 自修 : 스스로 學問을 닦고 德行을 쌓는다는 뜻. [大學] '如琢如磨者 自修'

81) 白日 : 빛나는 태양, 흐리지 않는 날이란 뜻에서 아무 죄가 없고 결백함을 비유한다. [孔融] '浮雲翳白日'

82) 精粗 : 정밀함과 추잡함, 자세함과 거침을 뜻함. [大學章句] '衆物之表裏精粗無不到'

83) 脚踏 : 일을 하는 것을 뜻함. [宋史] '劉甲 嘗爲吾無他長 惟脚踏實地'

84) 自謙 : 自謙. 스스로 자기를 겸양하는 것을 말함. [大學 自謙注] '謙謂謙云云'.

上下四方	上下와 四方이
莫非我闢	나의 문이 아닌 곳이 없으니
曷敢越乎範	어찌 함부로 규범을 벗어나서
外親賢樂利	친현을 멀리 하고 이익을 즐기라
各得其宜	각각 도두가 마땅함을 얻어서
咸管攝於絜矩	絜矩之道 ⁸⁵⁾ 를 따라 겸하여 주관하니 ⁸⁶⁾
茲進德之極功	이 德에 나아가는 지극한 공부가
亦聖道之庶幾	또한 聖人の 道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然知門入者蓋寡	그러나 문에 들어가는 자 적으므로
故衆人之昧惑	못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혹하게 된다
嗟聖賢躬行之樂	아 聖賢들의 몸소 행하는 즐거움이
地曠百世而塵寂	오래도록 넓은 땅에 적료하였다네
幸河南之獨詣	다행히 河南 ⁸⁷⁾ 程先生이 홀로 뛰어나
始揭號而洞開	처음 구호를 걸고 동구를 열었으며
況紫陽之深造	하물며 紫陽 ⁸⁸⁾ 夫子의 심오한 조예이라
又補闕而增恢	빠진 것을 보충하고 없어진 것 더하여
而久閉之門墻	오래도록 닫혔던 덕의 문과 담장이
至于斯而重光	이에 이르러 거듭 빛나게 되고
穴牕牖於宇宙	우주의 창문이 열리게 됨으로써
歷萬古而昭章	萬古를 지나서도 밝게 빛나니
孰在門而揮之	누가 문에 있으면서 발휘하지 않으며
誘入室而升堂	入室하여 升堂함을 깨우치지 않으리오
嗟尙德之無人	아, 德을 숭상하는 사람이 없으니
門雖設而常關	문이 설치되어 있지만 항상 닫혀 있고
紛紛異道而求入	어지러이 다른 길을 구하여 들어가
未半道而廢	중도에 그만두고 돌아 와서는
還是猶欲入而自閉	도리어 들어가려 하였지만 저절로 닫혔다 하네
嗟後學之不誠	아, 後學들의 성실하지 못함이여
懲此志之不固	이 뜻이 견고하지 못함을 일깨우고자
誠日新於盤銘	盤銘 ⁸⁹⁾ 에다 日新을 경계하였다네
旣識門又直進孰憂	이미 문을 안다면 곧바로 나아감에 무슨 근심 있으랴

85) 絜矩 : 사람을 생각하고 살피어서 바른 길로 향하게 하는 도덕상의 규칙을 말한다. [大學] '是以 君子有絜矩之道也'.

86) 管攝 : 兼管. 두 가지 일을 겸하여 주관하는 것을 뜻한다.

87) 河南 : 河南 程氏로, 宋 나라 때의 유학자인 程顥와 程頤를 가리킨다.

88) 紫陽 : 宋나라 朱熹의 별호이다.

89) 盤銘 : 『大學』의 傳文에 나오는 말로, 湯임금이 목욕하는 그릇에 스스로를 경계하는 말을 새긴 것을 말한다. 『大學』 湯之盤銘曰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夫余力之不任	대체로 나의 힘이 감당하지 못하여
扣玄關而啓鑰	玄關 ⁹⁰⁾ 을 두드려 열고 들어가거나
期入德而駸駸	德에 들어섬을 기약하여 점진하면서도 ⁹¹⁾
恐見近而忽之	가까움을 보고도 소홀히 할까 두려워
遂題門而自箴 箴曰	마침내 入德門을 제목으로 경계하여 箴하기를

門之外兮 鬼谷千尋	入德門 밖에는 천 길의 鬼谷이요
門之內兮 聖道弘深	入德門 안에는 성현의 도 넓고 깊네
盍歸乎來 詢訏且樂	어찌 돌아가 묻고 즐거워하지 않으랴
由而入則 堯舜可及	문을 따라 들어가면 堯舜이 될 수 있고
反而出則 禽獸同歸	도로 문을 나가면 禽獸 같이 될 것이다
嗟惟是門 進德之基	아, 이 문이여 德에 나아가는 바탕이라
君子所履 小人所視	군자는 履行하고 小人이 보는 것
所入殊闕 聖狂分岐	들어가는 문이 다르면 聖人 狂人 나뉘지니
吾爲此懼 守門以敬	나는 이를 두려워하여 敬으로 문 지키려네
奉承聖教 顧謨明命	聖人 교훈 받들어 이 明命을 돌아보며 ⁹²⁾ .
曷不自力 在吾性兮	어찌 스스로 힘써 本性 보존 않으리오

5. 後進 養成 - 教育活動

退溪先生이 돌아가신 지⁹³⁾ 4년이 되자 士林에서 廬江의 五老峯 아래에 書院을 짓고자 하여, 먼저 선생을 洞主로 삼아 白蓮寺를 철거하고 佛像을 부수어 강에 던졌다. 처음에는 僧徒들이 항거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다가, 이미 선생과 鶴峯 金誠一 선생이 왔다는 것을 듣고, 모두 두려워하여 흩어졌다고 한다.

선생은 同門의 여러 선생과 書院의 規約⁹⁴⁾을 講求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陶山과 本院에 와서 규약을 바로잡았다. 또 安東府伯 草澗 權文海 공에게 편지를

90) 玄關 : 玄妙한 道로 들어가는 문을 뜻한다. 『傳燈錄』 啓鑿玄關.

91) 駸駸 : 빠르게 지나가는 모양. 漸進하는 모양.

92) 顧謨明命 : 하늘이 나에게 明命을 주어서 내가 德으로 삼았기에 항상 눈을 여기에 두면 때마다 밝지 않은 것이 없다는 뜻이다. [大學] '太甲曰 顧謨天之明命'

93) 易簣 : 학덕이 높은 사람이 죽음. 또는 그의 임종.

94) 矩矱 : 矱은 자획. 법도화. 표준이 되는 제도. 모범. 본보기.

하여, 퇴계 선생이 白雲洞書院을 위하여 觀察使에게 편지를 올렸던 故事에 의거, 書院을 昇格시켜 國學으로 만들고자 하였는데, 그 편지의 수천 餘言이 선생의 자필이었다.

선생은 문을 닫고 고요히 修身하며 벼슬을 구하는데 뜻이 없었다. 일찍이 한번 寧海府의 教授⁹⁵⁾가 되었는데, 관직이 낮다고 여기지 않고는 講樓를 수리하고, 學規를 거듭 밝혀, 부지런히 학업을 장려하였으므로 지금까지도 寧海의 長老들이 많이 稱頌하고 있다.

生徒들을 가르칠 때는 課程을 엄정하게 세워, 오직 句讀를 優先으로 하지 않고, 精微한 뜻을 반복하게 하였으며, 詞華를 숭상하지 아니하고, 義利의 本分을 分析하였다. 孝悌와 忠信에 根本을 두어, 事親·事君의 道를 알게 하였으며, 生徒들이 나아갈 길을 바로 잡아, 成己·成物의 공부를 達成하도록 引導⁹⁶⁾하였다.

회초리⁹⁷⁾를 드는 대신에 자상하게⁹⁸⁾ 이끌어 주었으며, 강에서 시작하여⁹⁹⁾ 바다에 이르듯이 순서에 따라 나아가도록 策勵하였다. 공부하는 여가에 諸生들을 인도하여 堂에 올라 聖賢의 深奧한 理致를 강구하고, 古今의 得失을 토로하여 門路를 開拓하게 하였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謹嚴하고 端正하게 앉아 沈潛하여¹⁰⁰⁾ 글의 깊은 뜻을 곰곰이 생각하며 찾았다.¹⁰¹⁾

돌아가시던 해에도¹⁰²⁾ 선생에게 배우고자¹⁰³⁾ 경서(經書)를 들고 오는 자들

95) 學教 : 四學의 教授.

96) 提撕 : 후진을 가르쳐 인도함. [顏氏家訓 序致] '提撕子孫'. 기운을 내어 奮發하고 振作함.

97) 夏楚 : 학교에서 게으른 생도를 때리는 회초리. 회초리로 때려 훈계함.

98) 諄諄 : 곡진하게 타이르는 모양.

99) 先河 : 사물의 맨 처음. 嚆矢.

100) 沈潛 : 마음을 진정하고 깊이 생각함.

101) 覈索 : 玩索. 글의 깊은 뜻을 곰곰이 생각하여 찾음.

102) 啓手之年 : 善終의 代稱. 曾子가 그의 임종 때에, 제자들에게 이불을 들추고 자기 손발을 보라고 말하였다는 故事에서 신체에 상처 없이 臨終함을 말한다. [論語 泰伯 3] '曾子有疾 召門弟子曰 啓予足 啓予手 詩云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冰 而今而後 吾知免夫 小子'

103) 鼓篋 : 학과가 시작할 때 북을 쳐서 학생을 모아 놓고 책상자를 열어 책을 꺼내

이 날마다 문에 이르렀으니, 대개 이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몸을 마쳤다. 성취한 사람이 매우 많은데 賁趾 南致利, 芝軒 鄭士誠 같은 諸賢들은 선생이 陶山에 나아가 학업을 마쳐 학문으로 드러난 사람이고, 玉山 權暉, 判書 朴毅長, 梧峯 申之梯, 蘆川 權泰一 등 제공들은 朝廷에 立身하여 당시의 이름난 사람이 되었으며, 北厓 金圻, 守靜 琴撥은 행실로 重望이 있었고, 方潭 權杠은 後進을 가르쳐, 한 시대에 이름난 사람들이 선생의 門下에서 많이 배출되었으므로, 福州 文學의 繁盛함이 선생으로부터 倡道되었다고 말한다.

내가 고을의 어른들을 만나보니 모두 말하기를 '嘉靖 萬曆年間에 師道를 세우고 후진을 장려한 것은 선생이 으뜸이다' 라고 하였다. 대개 선생이 丈席¹⁰⁴⁾의 위치에 계신지 30년 동안에 학도들이 數百人에 이르렀다. 그 중에 顯達한 사람은 모두 세상에 이름을 떨쳤고, 困窮하여 그 아래에 있는 자들도 또한 謹飭한 선비가 되는 것을 잃지 않았다.

선생의 道가 비록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行해지지 않았지만 후학들에게 전해졌고, 선생의 가르침이 비록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후세에 드리워져서, 지금에 이르도록 고을 사람들과 집안에서 대대로 傳授하여, 아버지가 가르치고 형이 가르치는 것이 선생의 공적이 아닌 것이 없다. 아아 성하도다.¹⁰⁵⁾

선생의 曾孫이신 進士 晉槩氏가 當日 同門錄과 名賢들의 詠歌帖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또 한 마디 말을 기록해 줄 것을 청하였다. 나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沐浴齋戒하고 삼가 글을 읽어보고, 바르게 고쳐 앉아서 말하기를 '아아, 선생이 이루어 놓은 덕은 斯文이 行통할 운세에 관계된 것이니, 어찌 단지 집안의 글방이나, 고을 학교의 다행함일 뿐이겠는가.¹⁰⁶⁾

옛날 唐나라 李潑氏가 白鹿洞에 隱居하면서 精舍를 짓고 花木을 심었던 일은 한 때의 훌륭한 일이었으므로, 그 후에 國學이 되었으나 혹은 흥하고 혹은 폐해지게 되었다. 朱子가 南康을 다스리게 되면서 朝廷에 건의하여 다시 새롭게 重

게 한다는 뜻으로 就學함을 이름.

104) 장석(丈席): 학문과 덕망이 높은 사람.

105) 曲江 裴行儉〔遺事後敘〕

106) 宣城 李惟禕〈門人錄 跋〉

建하여, 천하에 크게 떨치게 하였으니, 선생이 도를 논하고 학문을 강론한 땅이 李渤의 精舍와 花木의 훌륭함을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낮고 어느 것이 못한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잘 분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107)

문인록(門人錄)을 살펴보니 비지(賁趾) 남치리(南致利)·지현(芝軒) 정사성(鄭士誠)·옥봉(玉峯) 권위(權暉)·노천(蘆川) 권태일(權泰一)·오봉(梧峯) 신지제(申之悌)·북애(北厓) 김기(金圻)·수정(守靜) 금발(琴撥)·방담(方潭) 권강(權杠)과 같은 제현들은 혹은 도학으로 존중되었고, 혹은 입신양명(立身揚名)하여 부모를 드러낸 것으로, 혹은 품행으로, 혹은 문장으로 존중되었다. 그리고 또한 어진 아들 삼형제는 능히 그 덕을 닦았으니, 선생이 자기를 이루고 남을 이루어준 공과 자기에게 쌓아서 후손들에게 넉넉하게 해준 계획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고산(孤山) 이유장(李惟樟)공이 이른바 '선생의 공덕은 진실로 사문(유학)이 형통할 운세와 관련이 있다'고 한 것은 참으로 도리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겠다.108)

門人錄

白仁國 字德瞻 號足閒堂 大興人 居寧海 生嘉靖庚寅 教授 壬辰倡義
 權昌緒 字振叔 安東人 居府西金地 生嘉靖丙申
 安夢說 字應賚 順興人 居府東寺谷 生嘉靖己亥 白衣書狀官 僉知 號文化
 權任 字士重 號松澗亭 醴泉人 居佳野 生嘉靖己亥 生員 參奉
 南致亨 字養仲 英陽人 居府內 生嘉靖庚子 生員 號養眞堂
 金允濟 字汝檣 順天人 居豐山 生嘉靖庚子
 李僕 字君舉 永川人 居佳野 生嘉靖辛丑
 金士亨 字士美 安東人 居眞寶 生嘉靖辛丑 文科 直長
 權謹 字士信 號梅隱 安東人 居豐山 生嘉靖壬寅 進士
 安萬謚 字可信 順興人 居臨河馬邑 生嘉靖壬寅
 朴灑 字希舌 丹山人 居臨河棄仕里 生嘉靖癸卯
 南致利 字義仲 號賁趾 英陽人 居府內 生嘉靖癸卯 享魯林書院
 柳光春 字季仁 晉州人 居九潭 生嘉靖癸卯

107) 宣城 李惟樟 [門人錄跋]

108) 김굉 찬 [墓碣銘]

白見龍 字文瑞 號惺軒 大興人 居寧海 生嘉靖癸卯 生員 享雲山書院
 金 坦 字汝平 光山人 居禮安 生嘉靖癸卯
 李 侃 字士行 號阿休亭 永川人 居住野 生嘉靖甲辰 訓導
 鄭希天 字誠之 清州人 居茅沙洞 生嘉靖甲辰
 權春桂 字彥秀 安東人 居住邱 生嘉靖甲辰 教官 贈吏曹判書
 張慶業 字榮伯 居義城 生嘉靖甲辰 字榮伯 號 橘叟 宣祖朝 遺逸 拜通訓大夫
 宣城令 以老病辭不就 嘗遊唯一齋門 探究性理 晚好易學 同門諸推先進¹⁰⁹⁾
 琴 潔 字滌卿 號二樂堂 鳳城人 居禮安 生嘉靖甲辰 宣傳 壬亂赴火旺山城
 權 均 字平甫 安東人 居茅沙洞 生嘉靖乙巳
 鄭士誠 字子明 號芝軒 清州人 居馬巖 生嘉靖乙巳 進士 參奉 縣監 享鶴巖社
 權 訥 字士明 安東人 居住野 生嘉靖乙巳
 李 煥 字士厚 居榮川 生嘉靖乙巳
 安夢周 字景聖 順興人 居臨河 生嘉靖乙巳 訓導
 金得礪 字致精 號道峯 光山人 居九潭 生嘉靖乙巳 生進
 金慶鸞 字雲老 號樂天堂 安東人 居住野 生嘉靖乙巳
 權 嘻 字君晦 號松窩 安東人 居道村 生嘉靖乙巳 訓導 贈參判
 許應周 字夢吉 居九潭 生嘉靖丙午
 朴世龍 字仲雲 號棗軒 咸安人 居寧海 生嘉靖甲辰
 鄭伯俊 字君彥 清州人 居茅沙洞 生嘉靖丁未
 金 翌 字顯甫 號愚巖 光山人 居九潭 生嘉靖丁未 生員 參奉
 南致貞 字藏仲 英陽人 居府內 生嘉靖丁未
 金 圻 字止叔 號北厓 光山人 居禮安 生嘉靖丁未 參奉 贈縣監
 申天民 字士先 寧海人 居寧海 生嘉靖丁未
 權 訥 字士敏 號梅軒 安東人 居住野 生嘉靖丁未 進士 爲先生構遠光精舍
 琴順先 字汝若 奉化人 居乃城 生嘉靖丁未
 李 坦 字士平 居永川 生嘉靖丁未
 安萬諧 字汝和 順興人 居臨河馬邑 生嘉靖丁未
 鄭希聖 字敬之 清州人 居茅沙洞 生嘉靖戊申 護軍
 申俊民 字士秀 號雪月堂 寧海人 居寧海 生嘉靖戊申
 孫興禮 字君立 號三省堂 慶州人 居花谷 生嘉靖戊申 生員
 裴 琬 字景潤 居臨河伐於 生嘉靖己酉
 權山斗 字君仰 安東人 居榮川 生嘉靖庚戌
 李 信 字士立 永川人 居住野 生嘉靖辛亥
 孫守禧 字 居勿野 生嘉靖辛亥
 李夢鯉 字文瑞 永川人 居加麻 生嘉靖辛亥
 南義祿 字士綏 英陽人 居寧海 生嘉靖辛亥 以壬辰勳陞判官 仍賜功臣錄券

109) [仁同張氏族譜] 卷一 參考

- 南 瑜 字士美 英陽人 居新陽 生嘉靖辛亥 僉樞
- 金 址 字景建 光山人 居禮安 生嘉靖辛亥 判事 內資寺正
- 權 暉 字叔晦 號玉峯 安東人 居道村 生嘉靖壬子 文科 正郎 享道溪祠
- 朴 洽 字希源 號石林 丹山人 居棄仕里 生嘉靖壬子
- 安 潑 字達源 號芝巖 廣州人 居九潭 生嘉靖壬子 進士
- 李陽復 字善初 永川人 居加麻 生嘉靖壬子
- 禹光先 字子述 丹陽人 居臨河本谷 生嘉靖壬子
- 李德承 字伯據 永川人 居禮安 生嘉靖癸丑
- 趙承先 字彥述 漢陽人 居臨河伐於 生嘉靖癸丑
- 孫 緝 字丕承 居寧海 生嘉靖癸丑
- 朱 植 字景立 號魚臺 新安人 居寧海 生嘉靖癸丑
- 金舜龍 字汝允 號漁川 安東人 居眞寶 生嘉靖癸丑 壬辰倡義 赴火旺山城
- 黃龍變 字 平海人 居寧海 生嘉靖癸丑
- 沈 謙 字益之 青松人 居才山 生嘉靖癸丑
- 權得說 字味道 安東人 居松川 生嘉靖癸丑
- 具忠胤 字允甫 綾州人 居茅沙洞 生嘉靖甲寅 別坐
- 安 泳 字 廣州人 居九潭 生嘉靖甲寅
- 禹錫祿 字季綏 丹陽人 居府東寺谷 生嘉靖甲寅
- 權得尹 字 安東人 居府東寺谷 生嘉靖甲寅
- 李 珮 字玉爾 號市隱 宣城人 居豐山 生嘉靖乙卯 主簿
- 權斗章 字 安東人 居豐基 生嘉靖乙卯
- 李榮春 字汝華 號烟花 居寧海 生嘉靖乙卯
- 朴毅長 字士剛 號清慎齋 務安人 寧海 生嘉靖乙卯 武科 兵使 贈判書 諡武毅 享九峯書院
- 金得研 字汝精 號葛峯 先生長子 生嘉靖乙卯 俱中生進 贈司憲府執義 戊午贈 爵 時自上特題教帖曰 道學淵源 允矣純正 忠勳節義 卓然全備
- 李忠節 字 居榮川 生嘉靖乙卯
- 權得可 字時中 號晚晦 安東人 居嘉灘 生嘉靖丙辰
- 權慶生 字仲時 安東人 居佳邱 生嘉靖丙辰 僉正
- 鄭仲俊 字君英 清州人 居長水洞 生嘉靖丙辰
- 李慶鯉 字君瑞 號種德亭 永川人 居加麻 生嘉靖丙辰 奉直郎 司宰監僉正
- 金安繼 字順伯 號梅隱 義城人 居一直 生嘉靖丙辰 宣務郎 軍資監主簿
- 朴宗胤 字 潘南人 居郡邑 生嘉靖丙辰
- 朴大胤 字士述 潘南人 居郡邑 生嘉靖丙辰
- 具善胤 字裕甫 綾州人 居茅沙洞 生嘉靖丙辰 從仕郎
- 安夢呂 字君望 順興人 居府東寺谷 生嘉靖丙辰
- 朴應天 字景遇 寧海人 居寧海 生嘉靖丙辰 有衛聖惠衆之功
- 李 圭 字君信 居榮川 生嘉靖丁巳

- 金 垺 字器仲 號雪厓 光山人 居禮安 生嘉靖丁巳 生員 察訪
 柳 漢 字天章 晉州人 居龍宮 生嘉靖丁巳
 金餘吉 字季祥 居臨河伐於 生嘉靖丁巳
 李 偉 字士豪 永川人 居佳野 生嘉靖戊午 軍資監奉事 贈掌樂院正
 南仁壽 字榮老 英陽人 居西澗 生嘉靖戊午
 具誠胤 字一甫 號午巖 綾州人 居茅沙洞 生嘉靖戊午
 朴 珮 字伯玉 居沙里 生嘉靖戊午
 權山海 字大受 安東人 居禮安 生嘉靖戊午
 南邦彥 字 英陽人 居一直 生嘉靖戊午
 安 浩 字 廣州人 居豐山 生嘉靖戊午
 南靖邦 字正則 英陽人 居寧海 生嘉靖戊午 薦授參奉
 趙承緒 字 漢陽人 居臨河伐於 生嘉靖戊午
 柳河龍 字叔見 豐山人 居豐基 生嘉靖己未 號燕河堂
 鄭季俊 字汝彥 清州人 居茅沙洞 生嘉靖己未
 張中機 字君省 居一直 生嘉靖庚申
 朴世胤 字丕述 潘南人 居郡邑 生嘉靖庚申
 南希杓 字而敬 英陽人 居一直 生嘉靖庚申
 權從可 字執中 安東人 居佳野 生嘉靖庚申
 李 遲 字器成 號博山 固城人 居府內 生嘉靖庚申 參議
 朴 澱 字希清 號岐園 丹山人 居棄仕里 生嘉靖庚申
 安 涉 字汝舟 廣州人 居九潭 生嘉靖辛酉
 申之孝 字達夫 號鷹巖 鵝州人 居義城 生嘉靖辛酉 壬辰死於倭亂 臨絕寄血書
 于弟 勉其死國
 禹致勤 字子逸 號南溪 丹陽人 居臨河本谷 生嘉靖辛酉
 金得令 字益精 號晚翠 先生第二子 生嘉靖辛酉
 裴三畏 字汝敬 興海人 居乃城 生嘉靖辛酉
 孫興謙 字君益 號石厓 慶州人 居石山 生嘉靖辛酉 訓導
 禹致文 字汝0 丹陽人 居臨河本谷 生嘉靖壬戌
 申之悌 字順夫 號梧峯 鵝州人 居義城 生嘉靖壬戌 文科 仁廟改玉 拜承旨不
 起 贈參判 享藏待書院
 朴仲胤 字景述 號洛厓 潘南人 居郡邑 生嘉靖壬戌 生員
 崔見龍 字德施 慶州人 居郡邑 生嘉靖壬戌
 權克昌 字纘叔 安東人 居佳野 生嘉靖壬戌
 南興達 字顯鄉 號慕巖 英陽人 居一直 生嘉靖壬戌
 李 遵 字憲成 固城人 居府內 生嘉靖壬戌
 金光道 字士修 號東籬 光山人 居禮安 生嘉靖壬戌
 南希柏 字 英陽人 居一直 生嘉靖壬戌
 趙大承 字 漢陽人 居臨河伐於 生嘉靖壬戌

金介明 字 居榮川 生嘉靖壬戌
 呂俊民 字 居乃城 生嘉靖壬戌
 權興仁 字安伯 安東人 居松鷹 生嘉靖甲子
 袞 瑾 字士實 興海人 居佳野 生嘉靖甲子
 金得礪 字景章 光山人 居九潭 生嘉靖甲子
 金介一 字守道 居榮川 生嘉靖甲子
 袞三戒 字汝慎 興海人 居乃城 生嘉靖甲子
 權 杠 字公舉 號方潭 安東人 居豐山 生嘉靖甲子 生員 薦授洗馬 享雲溪里社
 金得砒 字應精 光山人 居九潭 生嘉靖甲子
 安 澈 字 廣州人 居九潭 生嘉靖甲子
 朴 琨 字仲玉 居榮川 生嘉靖甲子
 權用可 字擇中 安東人 居佳野 生嘉靖甲子
 金光纘 字纘仲 號灣溪 光山人 居禮安 生嘉靖甲子
 李 琚 字君玉 公州人 居佳邱 生嘉靖甲子 內資寺 禮賓寺正
 安錫龍 字君會 順興人 居寺谷 生嘉靖甲子 號樂齋 進士博士
 金成潤 字 居榮川 生嘉靖甲子
 南隆達 字顯彥 號懶齋 英陽人 居一直 生嘉靖乙丑 贈左承旨 享鳳巖祠
 南太華 字士鎮 號雲礪 英陽人 居一直 生嘉靖乙丑 享公山祠
 趙大仁 字 漢陽人 居臨河伐於 生嘉靖乙丑
 孫興世 字汝俊 慶州人 居義城 生嘉靖乙丑
 具 浹 字 綾州人 居義城 生嘉靖乙丑
 李 適 字立夫 固城人 居府內 生嘉靖丙寅
 金仁吉 字吉甫 居佳野 生嘉靖丙寅
 申之信 字立夫 鵝州人 居豐山 生嘉靖丙寅 行蹟見聞韶誌
 南景适 字謹夫 英陽人 居義城 生嘉靖丙寅
 張希戴 字思哲 居台藏 生嘉靖丙寅
 申 浹 字澤遠 居台藏 生嘉靖丙寅
 南山壽 字 英陽人 居寺谷 生嘉靖丙寅
 尹東賢 字希聖 德山人 居禮安 生隆慶戊辰
 安景澤 字士洪 順興人 居佳邱 生隆慶戊辰 贈判書
 朴泰亨 字應會 號韶隱 潘南人 居義城 生隆慶丙寅 參奉
 金成澤 字而晦 宣城人 居榮川 生隆慶戊辰
 李 儼 字士恪 號仙巖 永川人 居眞寶 生隆慶戊辰 訓導 義禁府都事
 權 守 字 安東人 居牛頭山 生隆慶戊辰
 朴文潤 字士彬 號星谷 義興人 居義興 生隆慶戊辰
 丁汝翼 字 居義城 生隆慶戊辰
 趙守道 字景望 咸安人 居青松 生隆慶戊辰 號新堂 嘉靖乙丑 司僕寺正
 申 緝 字 鵝州人 居義城 生隆慶戊辰

權 混 字景源 號反求齋 安東人 居住邱 生隆慶戊辰 從仕郎
 李永郁 字文遠 永川人 居住野 生隆慶戊辰 奉事
 趙承元 字仁述 漢陽人 居伐於 生隆慶戊辰
 玉無玷 字 宜寧人 居吉安 生隆慶戊辰
 金 訥 字忍夫 光山人 居九潭 生隆慶戊辰
 金友仁 字子輔 宣城人 居榮川 生隆慶戊辰 教授
 南太別 字子紀 號晴川 英陽人 居一直 生隆慶戊辰 將仕郎 壬辰倡義 享公山祠
 權泰一 字守之 號蘆川 又號藏谷 安東人 居住邱 生隆慶己巳 進士 文科 參判
 趙 健 字汝強 號蓮潭 漢陽人 居英陽 生隆慶己巳
 南起龍 字雲瑞 英陽人 居吉安 生隆慶己巳 直長
 李 迥 字近夫 號繁巖 固城人 居府內 生隆慶己巳
 權 宗 字汝興 安東人 居住野 生隆慶己巳
 張天福 字 仁同人 居醴泉 生隆慶己巳¹¹⁰⁾ 字 士善 彰信校尉
 柳 淙 字 晉州人 居九潭 生隆慶己巳
 李 洽 字 居九潭 生隆慶己巳
 柳 浩 字 晉州人 居九潭 生隆慶己巳
 金得礪 字義精 號晴翠 先生弟三子 生隆慶庚午 生員
 鄭錫胤 字述夫 清州人 居茅沙洞 生隆慶庚午
 琴 振 字聲遠 號誠庵 奉化人 居乃城 生隆慶庚午
 李 建 字志成 固城人 居府內 生隆慶庚午
 權友直 字敬甫 號花岑 安東人 居住野 生隆慶辛未 壬辰倡義 以勳賜錄券
 趙大修 字而述 漢陽人 居伐於 生隆慶辛未
 李 淳 字 居九潭 生隆慶辛未
 琴 撥 字子開 號守靜齋 奉化人 居禮安 生萬曆癸酉
 朴文淹 字士中 號星巖 義興人 居義興 生萬曆甲戌 嘉靖 丁巳生員
 權友亮 字信甫 號儉巖 安東人 居住野 生萬曆乙亥
 印之龍 字 居榮川 生萬曆乙亥
 印之龜 字 居榮川 生萬曆乙亥
 趙遵道 字景行 號方壺 咸安人 居青松 生萬曆丙子 主簿
 李誠郁 字文一 永川人 居住野 生萬曆丁丑 贈參議
 李時郁 字文伯 永川人 居住野 生萬曆丁丑
 計 189人

110) 隆慶 己巳는 宣祖 2년(1569)인데, [仁同張氏族譜] 卷二에는 生明宗 丙寅(1566)이라 되어 있다.

6. 結論

結論을 대신하여 金浬(土+宏) 선생 撰 墓碣銘을 아래에 보인다.

龍之山巖巖	용산의 높고 높은 모습은
先生之德 與之俱崇	선생의 덕과 함께 우뚝하고
龍之溪涓涓	용계의 냇물이 졸졸졸 흐름은
先生之心 與之俱潔	선생의 마음과 함께 맑다네
匡山十年之攻玉	광산 ¹¹¹⁾ 에서 십년 옥을 다듬었고
鱣堂四方之育英	선당에서 사방 영재를 기르셨네
既進修之勤孜	덕에 나아가 부지런히 업을 닦고
亦開繼之彬蔚	開道하고 계승함이 화려 ¹¹²⁾ 하였네
此豈但資稟之美出類	어찌 타고난 자질이 남보다 뛰어난 뿐이라
抑可見師友之益實多	사우의 도움 진실로 많았음을 알 수 있네
後學之向慕深	후학들의 경모함이 더욱 깊었으며
外壘尸祝雲仍之追遠日篤	후손들 추모하여 제사함이 돈독하였네
顯刻貞珉	빛돌에 새겨서 길이 나타내노니
寔是君子之攸藏	이곳은 군자가 잠드신 곳이라
庶勿侵於樵牧	나무꾼 목동들은 침범하지 말지어다

나는 늙고 아는 것이 없어 시냇가에서 병을 고치고 있었는데, 선생의 칠세손 鴻九가 선생의 遺稿를 받들고 家大人¹¹³⁾의 편지와 여러 어른들의 뜻을 가지고 와서, 편집하여¹¹⁴⁾ 行狀을 지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는 어려서부터 남들과 같지 못하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¹¹⁵⁾ 精力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百世의 뒤에 선생의 남기신 행적을 차례로 논할 수 있겠는가. 그 모아서 기록한 것은 後人들이 전해 들은 것에서 나왔으므로, 당시에 자세히 살

111) 匡山 : 중국 江蘇省의 廬山. 여기서는 淸涼山을 말함.

112) 彬蔚 : 문체가 화려한 모양. [晉書 92 文苑傳 序] '彬蔚之美 競爽當年'

113) 家大人 : 남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

114) 撰次 : 순서대로 배열하여 편집함. 저술함. 기록함.

115) 年運 : 끊임없이 흐르는 세월. 세월이 쉬지 않고 흐름. [陸游詩] '旅遊渾似夢 年運遂成翁'. 나이와 運數. 그 해의 운수.

피고 삼가 기록한 것이 아니니, 또 어찌 懸揣¹¹⁶⁾와 杜撰¹¹⁷⁾의 譏弄을 면할 수 있겠는가.

이에 병이 든 가운데서도 柳·裊 두 사람이 기록한 것과 집안에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바로잡아¹¹⁸⁾ 정리하여, 자손 백세의 염원을 만족시키려 하였지만 감히 스스로 傳信의 자리를 맡지는 못하겠다. 훗날의 君子들은 오히려 이 참람한 늙은이를 용서하고, 더 采擇함이 있기를 바란다.

後學 平原 李光庭 삼가 씀.

116) 懸揣 : 억지로 추측하여 헤아림.

117) 杜撰 : 틀린 곳이 많은 저작.

118) 櫟括 : 도지개. 흰 것을 곧게 하는 것을 櫟이라 하고, 뒤틀린 방향을 바로잡는 것을 括이라 한다.